

여야 4당·무소속 5파전…女 신예 2명 눈길

누가 뛰나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송환기 전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원 맏글자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서는 장원섭 전 중앙당 사무총장이, 정의당에서는 당 부대표인 20대 여성 신예 문정은 후보가 도전장을 냈으며, 양청석 (재)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야 4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출마함에 따라 정당 간 ‘새 대결’도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당내 ‘정몽준계’ 인사로, 오랫동안 새누리당에서 당직 생활을 해왔다.

송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에서 ‘여당과 야당의 상생정치, 균형정치, 지역주의 청산’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야당의 텃밭이자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을 깨고 광주 정치지형을 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바둑 민심을 다지고 있다. 송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금지 조성사업 조기 완공 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과정에서 경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뉴스 메이커’가 된 인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공천 막판까지 ‘공’을 들여 영입한 인물로, 공천 과정에서 각종 잡음과 혼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락공천을 통해 공천장을 받았다.

■광주 광산을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이름	송환기(62)	권은희(40)	장원섭(48)	문정은(27)	양청석(54)
주요 경력	·전)새누리당 광산을 당협위원장 ·전)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광주·전남 지부장	·전)서울수사경찰서 수사과장 ·전)변호사	·전)통합진보당 사무총장 ·광산구 교육희망네트워킹 공동대표	·정의당 부대표 ·전)성공회대 총학생회장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대 광주·전남 부대표 ·(재)한국통일진흥원재단 전임교수

송환기, 정몽준계…새누리 前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

권은희, 대선개입 외압 폭로…우여곡절 끝 공천장 받아

장원섭, 진보당 사무총장 지내…2012 총선 27% 득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20대 젊은 패기 앞세워 출사표

양청석 통일진흥원 교수, 광산교육청 신설 등 주요 공약

권 후보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등으로 ‘스포츠라이트’를 받으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면에서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 후보가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 만큼 선거캠프를 중앙당과 광주시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선거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한다는 고민 끝에 선택했다”면서 “열심히 행동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의 숨결이 멀리 멀리 퍼지도록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학생운동에서 현장 노동운동가를 거치며 줄곧 진보정

치권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통합진보당 사무총장까지 지냈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지난 2010년 광주시장 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산(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7.53%의 득표율을 그쳤지만,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27.29%의 득표율을 올려 인지도를 상당히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후보는 ▲광산을 지역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광주공항 전투기 훈련 선(先) 중단, 후(後)조치 ▲광주비행장 부지를 서민 주거단지 및 자연친화공원 조성 추진 ▲최저임금 현실화(최저임금 458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 ▲농촌월급제 도입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20대 여성 신예 문정은 부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20대 젊은 패기를 앞세워 부패한 정부 여당과 무능한 제1야당의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부패한 정부와 무능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펼쳐보일 것”이라며 지역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정치개혁과 정권교체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전략공천을 남발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우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양청석 (재)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인 ‘광산의 새로운 리더, 최고의 재난안전 전문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양 후보는 ‘안전 대한민국’ ‘함께하는 교육’ ‘다같이 웃는 복지’ ‘오랫따라 산업경제’ ‘여성사회 경제활동보장’ 등 5대 정책비전과 함께 ▲통합고용복지 지원센터 유치 ▲광산교육청 신설 ▲종합문화센터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사활 전 ‘과반전쟁’ 초반 판세는 아직 안갯속

野 단일화·투표율 등 변수

결국 수도권서 결판날 듯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사실상 ‘선거 모드’에 들어갔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원내 과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이번 재보선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수=일단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수도권 민심의 향배가 바뀔 수 있다.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공천에 대한 보수층 반발 등 여권 표심의 결집 여부도 변수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14일 정당대회 결과와 야권후보 단일화, 여름 휴가철에 따른 투표율 등도 복합 변수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배제, 현장 밀착형 지역 일꾼을 뽑는 조용한 선거로 치러지는 게 기본 방침이다. 또 권은희 전 과장 공천 문제를 전략적 ‘보은공천’이라고 전면에 부각하며 보수표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

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책임론’에 집중하는 한편, 청와대의 ‘인사참사’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초반 판세=전반적인 관측은 어느 한 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막판 후보 공천이 이뤄지면서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규정하기 애매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지역을 나눠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대 격전지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까지 3파전을 벌이는 서울 동작 을이다. 수도권외 중심격인 ‘수원벨트’도 전체적인 재보선의 승패를 가를 요충지다. 수원 3곳의 보궐선거는 결국 ‘패키지’로 치러지는데다 모두 혼전 야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여야 모두 물리칠 수 없는 싸움을 각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서갑원 전 의원이 출전한 순천·곡성도 관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명중 여성 2명, 20대 1명, 50대 8명…재산 10억 이상 6명, 3명은 軍미필

■광주·전남 재보선 출마자

지역	이름	정당	성별	나이	재산	병역	체납액·전과
광산을	송환기	새누리당	남	62	50억4719만원	군필	없음·1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	40	5억8832만원	해당없음	없음·없음
	장원섭	통합진보당	남	48	1억3289만원	미필	없음·1건
	문정은	정의당	여	27	0원	없음	없음·없음
	양청석	무소속	남	54	7억3852만원	군필	없음·3건
순천·곡성	이정현	새누리당	남	55	6억1446만원	군필	없음·없음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남	52	14억9800만원	군필	없음·2건
	이성수	통합진보당	남	45	5344만원	군필	없음·3건
	구희승	무소속	남	51	28억9557만원	미필	없음·없음
	김동철	무소속	남	60	-2028만원	군필	없음·없음
나주·화순	김종우	새누리당	남	56	8억641만원	군필	없음·1건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남	49	-1693만원	미필	없음·5건
담양·함평·영광·장성	강백수	무소속	남	57	15억4222만원	군필	없음·4건
	이종호	새누리당	남	53	89억8916만원	군필	없음·없음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남	55	14억3297만원	군필	없음·없음

광주·전남 후보자 분석

광주·전남 4곳에서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15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여성은 광주 광산을 선거에 등록한 권은희·문정은 후보 2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명, 40대 4명, 50대 8명, 60대 2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은 이종호 89억원, 송환기 50억원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이 6명에 달한 반면 재산이 마이너스인 후보는 순천·곡성의 무소속 김동철, 나주·화순의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2명이었다. 문정은 후보는 0원을 신고했다.

남성 후보 13명 중 군 미필자는 장원

섭·구희승·신정훈 후보 등 3명으로 나타났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전과자는 8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범죄 유형도 뇌물수수, 사기에서부터 배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4개 선거구 15명의 후보를 비롯해 전국 15개 선거구에 이틀간 총 55명의 후보자가 등록,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통합진보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1명이 각각 등록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7·30 재보선 여야대진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송환기 광산을 당협위원장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문정은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양청석 합천부대표
전남 나주·화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김종우 나주중앙청년회위원장	신정훈 전 나주시장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새정치민주연합 이복언)	이종호 전 전주시청수호부	이개호 전 전남농협중앙회지사		
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김선홍)	이정현 전 함평대 총무수석	서갑원 전 의원	이성수	
서울 동작동 (새누리당 정종훈)	나경원 전 의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유선혜 최고위원	노회찬 전 대표
경기 수원북(권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원)	정미경 전 의원	박재현 경기도청 여성위원장	윤정현 권선구 위원장	박석준 위원장
경기 수원남(남일) (새정치민주연합 남경필)	김용남 변호사	손학규 당 대표	임미숙 수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대변인
경기 수원청(영동)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임태희 전 장관	박광문 당 대변인	최효선 대표	
경기 김포 (새누리당 유정복)	홍철호 전 당협위원장	김두관 전 경기도청 차장	김정환 경기도 일익위원장	
경기 평택 (새누리당 이재명)	유영호 전 노조위원장	정장선 전 의원	김복춘 지부장	
대전 대덕 (새누리당 박원호)	정환기 전 대덕구청장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충북 충주 (새누리당 윤진식)	이종배 전 충주시장	한창희 전 충주시청 차장	김종현 충주 위원회 부위원장	
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심원준)	김재서 변호사	조한기 전 대변인		
부산 해운대·기장갑 (새누리당 서병수)	배덕환 전 해운대구청장	윤준호 부산시장 대변인		
울산 남동 (새누리당 김기현)	박행우 전 울산시장		송철호 변호사	

2014 함평단호박 큰잔치

2014년 7월 18일(금) ~ 7월 19일(토) / 월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EVENT 01

함평단호박큰잔치 기념행사
월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준공식
7월18일(금) 오전10:00

■오시는길
네비게이션에서 월야초등학교를 검색하세요

EVENT 02

함평단호박 큰잔치 관람객 참여행사
CMB 단호박 열전 동네방네 (주부 노래자랑) 방송녹화
예선 : 7.18(금), 오후 14:00 ~ 19:00
본선 : 7.19(토), 오후 16:00 ~
초대가수 : 민지, 민성아, 한소아
참가문의 (선착순 접수)
읍면사무소 및 단호박향토산업사업단 (061-320-3918)
체험행사 단호박 수확체험, 단호박 가공제품 시식행사

EVENT 03

농축산물 특판행사
단호박, 오디, 복분자, 잡곡, 함평천지 한우고기
단호박 생과 파·격·할·인 (선착순 한정세일 판매)
함평 농특산물 경매이벤트
단호박 복불복 게임
단호박 아카데미 팜파티

주최 월야농협 주관 함평단호박향토산업사업단